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

김래은¹, 구상미^{2*}, 최선미²
¹유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²유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Differences in Harassment Behavior an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Traits of University Students

Rae-Eun Kim¹, Sang-Mee Koo^{2*}, Sun-Mi Choi²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U1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U1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CTS2를 김정란(199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데이트폭력 인식은 정하윤(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독립표본 t-검증 및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정서적 폭력에서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폭력은 더 높게 나타났다. 보건계열 전공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전공 학생보다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정서적 폭력에서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성경험 유무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정서적 폭력에서만 성별과 성 경험 유무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데이트폭력 인식 및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보건계열 전공학생이 인문사회계열 전공 학생보다 데이트폭력 인식 및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성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사이버 폭력에서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dating violence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As a research tool, CTS2 was used as a measure of dating violence, a measure developed by Kim(1999) was used, and a measure of dating violence by Jeong(2013) was use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multi-variate analys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differences in total violence against violence and psychological violence than boys, while boys showed higher physical violence than girls. Health major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otal dating violence and psychological violence than stud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ating violence offenses with or without sexual experience. Only psychological violence showed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sex experience. Second, fe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male student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cognition and sub-factors. Health major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both date violence perception and lower factors th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tudents without sexual experience perceived overall dating violence more than students with sexual, physical and cyber violence being significantly higher.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Harassment Behavior of Dating Violence, Date Violence Perception, Gender, Major, Sexual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 Sang-Mee Koo(U1 University)

email: ksm@u1.ac.kr

Received March 24, 2020

Accepted July 3, 2020

Revised April 28, 2020

Published July 31, 2020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미혼 남녀의 친밀감을 토대로 한 데이트 관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폭력적인 행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이슈화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은 2020년 1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다수 기사를 접할 수 있으며,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상당수가 보도되고 있다. 국내 남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1/3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고[1], 한국여성의 전화조사 결과에서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약 78%가 데이트폭력을 이미 경험하였고, 이후 신체적, 정서적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2].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은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뜻한다[1]. 남녀 간의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게 하는 등 결국 피해자의 사회부적응까지 초래하고 있다 [3,4]. 특히, 이성교제 및 남녀 간의 사랑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학생 시기에 겪게 되는 데이트폭력 행동은 결혼 후 부부폭력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16개국 31개 대학의 남녀 대학생에게서 유사하게 높은 폭행비율이 나타났으며 [5], 부부관계보다 미혼 남녀 간의 사적인 데이트 관계에서 오히려 더 많은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친밀한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는다고 하였다[6,7]. 또한, 부부 폭력행동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법적인 보호망의 밖에 있으며 [6], 사적인 남녀 관계에서 행해지므로 피해자가 상대방의 폭력행동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폭력 가해 행동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7], 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은 폭력 관계를 지속시키게 하는[8] 등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행동의 예방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대학의 제도적, 교육적 측면을 포함하여 사회·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이슈이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심각한 정신건강을 해치는 공중보건의 문제로[9], 이를 위해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과 관련된 기초적인 예측 변인을 분석하는 것은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 [7], 대상관계 수준[10], 성폭력 피해경험과 음주습관[11] 등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로는 [12,13]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고 하였고, [9]에서는 심리적, 신체적 폭력의 피해경험, 아동기 신체적 학대, 성격험이 있는 경우가 데이트 폭력의 예측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의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해행동과 관련된 대상자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전략 마련에 기초가 될 것이다.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중 하나로 데이트폭력 인식과 관련 있는 대학생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기초연구는 실질적이며 실효성 있는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가 있다. 데이트폭력 인식은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행동이 폭력인지를 분명히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인식은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상황에 대한 개인의 생각, 태도, 신념 등으로 보며, 데이트폭력을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14,15]. 연인간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폭력 상황을 더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내에서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인식을 분석한 기초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2]. 선행연구 중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는 남자 대학생과 성폭력 인식만을 변인으로 다루었으며[16], [1]에서는 성격험과 현재 이성교제 여부 등 이성교제 관련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데이트폭력 인식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이성교제 경험과 성격험이 많을수록 비합리적인 신념의 수용이 높고, 폭력인식이 낮아 데이트폭력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1,13] 관련연구가 적어 보다 축적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생활에서의 건강한 이성교제 경험은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획득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한 상담과 지도, 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실

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대학생의 주요 특성으로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성별, 전공 및 성격험 유무를 포함하여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인식에 대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1-1. 대학생의 성별, 전공계열 및 성격험 유무에 따라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1-2.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성별, 전공계열 및 성격험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데이트폭력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 2-1. 대학생의 성별, 전공계열 및 성격험 유무에 따라 데이트폭력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 2-2.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의 인식에 대한 성별, 전공계열 및 성격험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에 위치한 U대학을 임의 표집하여 인문사회계열로 사회복지학과, 경찰소방행정학부, 스포츠학부의 3개 학과와 보건계열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와 3개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총 3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각 특성에 따른 빈도 및 백분율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의하면, 성별은 남자가 220명(62.7%)이었고, 여자는 131명(37.3%)이었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198명(56.4%), 보건계열 학생이 153명(43.6%)이었고, 성격험은 '있다'가 223명(63.53%), '없다'가 128명(36.47%)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158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67명(19.1%), 3학년이 89명(25.4%), 4학년이 37명(10.5%)으로 가장 적었다. 현재까지 만난 이성교제 수는

1~3명이 174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4~6명이 108명(33.6%), 10명 이상이 32명(6.4%), 7~9명이 26명(7.4%)이었으며, 0명이 11명(3.1%)으로 가장 적었다.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raits of study subjects (N=35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20	62.7
	Female	131	37.3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98	56.4
	Health care	153	43.6
Sexual experience	Yes	223	63.53
	No	128	36.47
Grade	1	158	45.0
	2	67	19.1
	3	89	25.4
	4	37	10.5
Number of heterosexual relationships we have met so far	0	11	3.1
	1~3	174	49.5
	4~6	108	33.6
	7~9	26	7.4
	Over 10	32	6.4

2.2 연구도구

2.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전공, 학년, 성격험유무, 지금까지 성격험 횟수를 조사하였다.

2.2.2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실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등(1996)[17]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18]를 김정란(1999)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폭력(11문항), 신체적 폭력(7문항), 성적폭력(4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자주'(5점), '자주'(4점), '때때로'(3점), '드물게'(2점), '없음'(1점)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92, 하위요인은 정서적 폭력 .90, 신체적 폭력 .86, 성적 폭력 .94로 나타났다.

2.2.3 데이트폭력 인식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정하운(2013)[1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정서적 폭력에 대한 인식(8문항), 언어 폭력에 대한 인식(9문항),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4문항),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식(7문항),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7문항)으로 5가지 하위요인,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절대 데이트폭력이 아니다'(1점)에서 '매우 심각한 데이트 폭력이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총 35점에서 175점의 점수분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인식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이 .9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정서적 폭력에 대한 인식 .87, 언어 폭력에 대한 인식 .82,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 .89,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식 .80,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 .87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1차 작성된 설문지는 문항의 적절성, 소요시간 및 난해한 문항 등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소방행정학부 3학년 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2일부터 3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생들에게 예비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문항을 상세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설문지 문항내용을 예비조사 학생들과 함께 검토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용어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세부항목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된 설문지는 경찰소방행정학부,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 받은 후 최종 설문지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예비조사와 전문가 타당도 검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최종 설문지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U대학의 인문사회계열 3개학과와 보건계열 3개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총 390명에게 본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 220명, 보건계열 학생들 170명으로 총 390명에게 39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같은 번호를 무성의하게 응답하였거나 무응답이 많은 등 부실 기재된 설문지 및 설문을 거부한 대학생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적용된 설문지는 인문사회계열 198부, 보건계열 153부, 총 351부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이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데이트폭력 실태 및 인식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인식에 대한 성별, 전공 및 성격유형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차이

3.1.1 성별 및 전공계열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차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t=-4.07, p<.001$). 구체적으로, 정서적 폭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난 반면($t=-6.10, p<.001$), 신체적 폭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t=2.87, p<.01$), 성적 폭력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8, p>.05$).

Table 2. The difference of harassment behavior of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gender (N=351)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Psychological Violence	Male	220	16.65±6.03	-6.10***
	Female	131	21.50±7.82	
Sexual Violence	Male	220	8.36±3.15	0.08
	Female	131	8.34±3.02	
Physical Violence	Male	220	4.49±1.73	2.87**
	Female	131	4.11±0.75	
Total	Male	220	29.50±9.78	-4.07***
	Female	131	33.94±10.06	

** $p<.01$, *** $p<.001$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보건계열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t=-2.37, p<.05$). 구체적으로, 정서적 폭력은 보건계열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난 반면($t=-4.08, p<.001$), 성적 폭력($t=1.42, p>.05$) 및 신체적 폭력($t=1.42, p>.05$)은 전공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difference of harassment behavior of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major (N=351)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Psychological Viol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0	17.12±6.67	-4.08***
	Health Care	131	20.19±7.37	
Sexual Viol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0	8.48±3.32	0.87
	Health Care	131	8.19±2.80	
Physical Viol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0	4.44±1.60	1.42
	Health Care	131	4.22±1.23	
Tot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0	30.05±10.34	-2.37*
	Health Care	131	32.60±9.62	

** $p<.05$, *** $p<.001$

Table 4. The difference of harassment behavior of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experiment of sexual experience (N=351)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Psychological Violence	Yes	223	18.78±7.28	-1.12
	No	128	17.90±6.87	
Sexual Violence	Yes	223	8.54±3.45	-1.63
	No	128	8.03±2.34	
Physical Violence	Yes	223	4.42±1.66	-1.34
	No	128	4.23±1.00	
Total	Yes	223	31.74±10.66	-1.41
	No	128	30.16±9.00	

대학생의 성 경험 유무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의

하면, 대학생의 성 경험 유무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t=-1.41, p>.05$)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서적 폭력($t=-1.12, p>.05$), 성적 폭력($t=-1.63, p>.05$) 및 신체적 폭력($t=-1.34, p>.05$)은 성 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성별, 전공계열 및 성 경험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성별, 전공계열 및 성 경험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하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성별, 전공계열 및 성 경험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폭력에서만 성별과 성 경험 유무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4.99, p<.05$). 그 외 나머지 모든 변인에서는 모두 성별과 전공, 성별과 성경험 유무 및 전공과 성경험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ender, major and experience of sexual experience on harassment behavior of dating violence (N=351)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Gender * Major	Psychological Violence	64.69	1	64.69	1.42
	Sexual Violence	4.06	1	4.06	0.42
	Physical Violence	.31	1	.31	0.15
	Total	29.98	1	29.98	0.31
Gender * Sexual experience	Psychological Violence	217.52	1	217.52	4.89*
	Sexual Violence	7.42	1	7.42	0.77
	Physical Violence	.01	1	.01	0.01
	Total	309.11	1	309.11	3.22
Major * Sexual experience	Psychological Violence	22.11	1	22.11	0.34
	Sexual Violence	1.43	1	1.43	0.15
	Physical Violence	.01	1	.01	0.00
	Total	11.82	1	11.82	0.12

3.2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

3.2.1 성별, 전공계열 및 성 경험 유무에 따른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t=-8.64, p<.001$). 구체적으로, 정서적 폭력($t=-9.72, p<.001$), 언어 폭력($t=-4.76, p<.001$), 성적 폭력($t=-8.27, p<.001$), 신체적 폭력($t=-5.75, p<.001$) 및 사이버 폭력($t=-8.43, p<.001$)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6.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gender (N=351)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Emotional Violence	Male	220	24.02±6.79	-9.72***
	Female	131	29.86±4.57	
Verbal Violence	Male	220	31.27±7.37	-4.76***
	Female	131	35.20±7.66	
Sexual Violence	Male	220	14.36±4.45	-8.27***
	Female	131	17.51±2.70	
Physical Violence	Male	220	27.61±5.95	-5.75***
	Female	131	30.86±4.54	
Cyber Violence	Male	220	24.93±6.50	-8.43***
	Female	131	29.69±4.07	
Total	Male	220	122.19±27.18	-8.64***
	Female	131	143.11±18.12	

*** $p<.001$

Table 7.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major (N=351)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Emotional Viol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0	24.26±6.83	-6.56***
	Health Care	131	28.71±5.57	
Verbal Viol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0	31.39±8.00	-3.78***
	Health Care	131	34.47±6.96	
Sexual Viol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0	14.50±4.46	-5.71***
	Health Care	131	16.88±3.33	
Physical Viol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0	27.69±5.92	-4.44***
	Health Care	131	30.29±5.01	
Cyber Viol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0	24.85±6.48	-7.11***
	Health Care	131	29.11±4.75	
Tot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0	122.69±27.34	-6.46***
	Health Care	131	139.69±21.29	

*** $p<.001$

대학생의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7에 의하면,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은 보건계열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t=-6.46, p<.001$). 구체적으로, 정서적 폭력($t=-6.56, p<.001$), 언어폭력($t=-3.78, p<.001$), 성적 폭력($t=-5.71, p<.001$), 신체적 폭력($t=-4.44, p<.001$) 및 사이버 폭력($t=-7.11, p<.001$) 모두 보건계열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경험 유무에 따른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은 성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t=-2.17, p<.05$). 구체적으로, 정서적 폭력($t=-1.39, p>.05$), 언어 폭력($t=-1.35, p>.05$)은 성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나타난 반면, 성폭력($t=-2.67, p<.01$), 신체적 폭력($t=-2.07, p<.05$) 및 사이버 폭력($t=-2.42, p<.05$)은 성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8.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experience of sexual experience (N=351)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Emotional Violence	Yes	223	25.83±6.61	-1.39
	No	128	26.85±6.78	
Verbal Violence	Yes	223	32.31±7.50	-1.35
	No	128	33.47±8.04	
Sexual Violence	Yes	223	15.10±4.25	-2.67**
	No	128	16.30±3.93	
Physical Violence	Yes	223	28.37±5.93	-2.07*
	No	128	29.62±5.14	
Cyber Violence	Yes	223	26.11±6.22	-2.42*
	No	128	27.75±5.92	
Total	Yes	223	127.71±26.20	-2.17*
	No	128	133.98±25.84	

* $p<.05$, ** $p<.001$

3.2.2 데이트폭력 인식에 대한 성별, 전공계열 및 성경험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에 대한 성별, 전공계열 및 성경험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모든 변인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ender, major, experience of sexual experience on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N=351)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Gender * Major	Emotional Violence	25.25	1	25.25	0.70
	Verbal Violence	.01	1	.01	0.00
	Sexual Violence	22.65	1	22.65	1.52
	Physical Violence	3.91	1	3.91	0.13
	Cyber Violence	11.51	1	11.51	0.36
	Total	127.08	1	127.08	0.22
Gender * sexual experience	Emotional Violence	1.01	1	1.01	0.03
	Verbal Violence	7.48	1	7.48	0.13
	Sexual Violence	2.93	1	2.93	0.19
	Physical Violence	18.89	1	18.89	0.63
	Cyber Violence	.001	1	.001	0.00
	Total	40.92	1	40.92	0.07
Major * sexual experience	Emotional Violence	71.96	1	71.96	1.82
	Verbal Violence	28.98	1	28.98	0.51
	Sexual Violence	18.76	1	18.76	1.19
	Physical Violence	5.80	1	5.80	0.19
	Cyber Violence	42.48	1	42.48	1.29
	Total	497.67	1	497.67	0.8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인문사회계열 학과와 보건계열 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특성 즉, 성별, 전공 및 성격 유형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폭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신체적 폭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폭력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는 선행 연구들[6,12]

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장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고와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정화된 성역할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녀 관계에서 갈등상황 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2,20,21],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을 허용하는데 중요한 영향 변수[23,24]로 설명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가해 행동이 남학생의 가해 행동보다 높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1]도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빈도와 강도를 포함한 가해 행동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폭력은 선행연구들[10,24,25]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Luthra 등[26]은 여성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원인을 상대방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반응 즉,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유로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여성은 이성에게 화가 나거나 갈등상황일 때 신체적 폭력 보다는 정서적 폭력을 더 행사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서적 폭력은 폭력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적 폭력행동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행동들이 상대방의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이성관계에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Kang 등[25]은 대학생의 정서적 폭력의 가해 동기가 남녀 모두에게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동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폭력 발생 시 대학생들에게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에 일반학생 대상의 상담센터를 넘어서는 ‘심리상담소’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교내의 전문 심리상담가 배치 및 남녀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대학 단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서 보건계열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폭력은 보건계열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성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은 전공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에 따라 정서적 폭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보건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 비해 정신간호학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교과의 내용에서 정신, 심리, 정서와 관련된 개념 및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어서 정서적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는 특히,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폭력의 경우 이를 인지하고 민감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보건계열 학생들에게는 학업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등의 데이트 상대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특히 정서적 폭력 예방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Lee 등[13]의 연구에서 보건계열 전공자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보다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낮다고 하였는데,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데이트폭력의 강력한 예측 변수임을 고려할 때[7,27],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관련 다양한 변인들을 비교분석한 후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차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성경험 유무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포함하여 하위요인 중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 모두 성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경우 성경험과 데이트폭력 관련 변인들은 상관이 없다는 Ha 등[1], Lee 등[27]의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성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변인으로 추후연구에서는 성경험의 유무를 넘어서 성경험의 빈도 및 성경험 대상자의 수 등 대학생의 성경험을 세분화하여 이러한 변인이 성폭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성별, 전공 및 성경험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정서적 폭력에서만 성별과 성경험 유무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하위요인들은 변인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즉, 정서적 폭력에서 남학생은 성 경험 유무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지만, 여학생의 경우 성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정서적 폭력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나 성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으로 단순 설문을 통해 정서적 폭력과의 상관을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인식은 전체 데이트폭

력 인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역시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데이트폭력 인식수준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며[1,6,7,28]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비합리적 인식 및 신념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을 하고도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데이트 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29]와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데이트폭력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19]를 종합해보면,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해 대학 내에서 데이트폭력의 실제적인 사례 제시와 경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남녀의 차이를 고려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전공에 따른 데이트폭력 인식은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에서 보건계열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역시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사이버 폭력 모두 보건계열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경우 전공교과 수업시간을 통해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발생요인, 폭력의 역동성 및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간호하는 방법 등을 학습하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 학생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Lee 등[13]의 연구에 따르면, 보건계열 전공자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보다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데이트폭력 인식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을 허용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7,15].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7,27] 및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의 강력한 예측 변수임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청소년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및 직장(성인기)까지 연계된 지속적이며 체계화된 건강한 이성 관계에 대한 교육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는 '건강한 결혼 및 관계 교육(HMRE: Healthy Marriage & Relationship Education)'을 11세부터 시작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되

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건강한 이성관계가 무엇인지 인지하게 되었으며, 데이트 관계에서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고, 이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갈등발생 시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과 기술 등을 학습하게 되어 이성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다[20].

국내에서 데이트폭력의 가해 행동을 줄이고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Jeong[19]의 연구 밖에 없다. 국내에서 데이트폭력의 발생률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을 당하기도 문제해결 없이 결혼까지 이어지고(46.4%), 이들 중 17.4%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서울 지방자치단체, 2018))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성교제가 가장 활발한 시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교과시간이나 교양교과 시간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별, 전공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정 및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성경험 유무에 따른 데이트폭력 인식은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에서 성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은 성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폭력, 신체폭력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은 성경험이 없는 학생이 성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험이 없고, 현재 교제중인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 데이트폭력 인식 점수가 높다는 Ha등[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교제기간이 길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많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1,30]를 반영하여 추후 연구에서 이성교제 기간 및 데이트 유형 등을 분석한 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특히,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남자대학생에게는 성희롱 및 성폭력의 민감도를 높이는 교육내용을 다루며, 여학생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을 다루는 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인식에 대한 성별, 전공계열 및 성경험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 및 모든 하위요인에서 성별, 전공, 및 성경험 유무 간에 상호 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지역과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최신의 관련 연구결과가 축적된 후 결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데이트폭력의 신체적, 성적 폭력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는 달리 정서적, 사이버 폭력까지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 전공 및 성경험 유무 등을 포함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는 바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충북 소재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연구 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조사하였으나 가해 동기 등의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가해 동기는 데이트폭력을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인 중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변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대학생 대상의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것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을 위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Y. J. Ha, M. K. Seo, "A study of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dating violenc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30, No.4, pp.79-103, 2014.
- [2] J. Yoon, S. Y. Yang, B. K. Park.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patriarchal gender attitude, and inferiority complex on acceptability of college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6, pp.79-107, 2012.
- [3] S. M. Jackson, F. Cram, F. W. Seymour. "Violence and sexual coercion in high school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15, No.1, pp. 23-36, Mar, 2000.
- [4] S. A. Kaura, B. J. L. Lohma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mental health problems, and acceptability of violence: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22, No.1, pp. 367-381, 2007.
DOI: <https://doi.org/10.1007/s10896-007-9092-0>
- [5] M. A. Straus,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Vol.10, No. 7, pp.790-811,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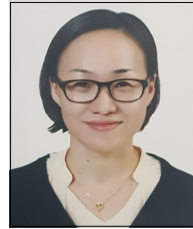
- DOI: <https://doi.org/10.1177/1077801204265552>
- [6] C. Y. Lim, M. S. Lee, S. Y. Jung, "The effects of violence perception on dating viol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35, No. pp.147-179, 2010.
- [7] S. Y. Jung, C. Y. Lim, M. S. Lee, "The effects of prejudice on dating viol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violence acceptability and relationship conflic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7, No.4, pp.127-151, 2011.
- [8] R. Lundgren, A. Amin, "Address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mong adolescents: emerging evidence of effectivenes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56, No.1, pp.42-50, 2015.
DOI: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4.08.012>
- [9] H. S. Kang, E. S. Lee. "Predictive factors for perpetrations of dating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3, No.4, pp. 288-298, 2014.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4.23.4.288>
- [10] J. Y. Jang, J. H. Kang, "The mediation effect of cling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 relation level and the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1, pp.307-327, 2017.
DOI: <https://doi.org/10.15703/kjc.18.1.201702.307>
- [11] S. R. Shin. "How does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sexual abuse and alcohol abuse affect offence of dating violence? : focused on mediate of criminal history",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19, No.6, pp.197-205. 2017.
- [12] J. M. Park, N. Y. Shin, H. S. Park, "A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media violence acceptance and violence perception on dating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4, pp.237-246. 2019.
- [13] H. J. Lee, M. S. Yoon, Y. E. Kim, S. Y. Le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tolerance and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8, No.3, pp.115-125. 2018.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3.115>
- [14] J. Y. Lee, E. S. Lee,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7, No.2, pp.419-436, 2005.
- [15] N. E. Werner, C. I. Nixon, "Normative beliefs and relational aggression: an investigation of the cognitive bases of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s*, Vol.34, No.3, pp.229-243. 2005.
OI: <https://doi.org/10.1007/s10964-005-4306-3>
- [16] B. M. Kim,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male university students'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6, pp.525-533.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6.525>
- [17] M. A. Straus, S. L. Hamby, S. Boney,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 Mar, 1996.
DOI: <https://doi.org/10.1177/019251396017003001>
- [18] J. R. Kim,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Coping Behavior*, Ph.D dissertation, Che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 pp.31-35, 1999.
- [19] H. Y. Jeo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REBT-base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pp.45-46, 2013.
- [20] R. Savasuk-Luxton, F. Adler-Baeder, M. L. Haseleschwerdt, "Understanding change in violence-related attitudes for adolescents in relationship education", *Journal of Adolescence*, Vol.63, pp.153-164, Feb, 2018.
DOI: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7.12.012>
- [21] M. O'Keefe, "Teen dating violence: a review of risk factors and prevention efforts", *National Electronic Network on Violence Against Women*, pp.1-13, 2005.
DOI: <https://doi.org/10.1177/1524838007309804>
- [22] O. J. Kwon, Y. E. Jang, "The effects of exposure to parental violence on dating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43, No.1, pp.235-263, 2019.
DOI: <https://doi.org/10.33071/ssricb.43.1.201904.235>
- [23] W. Y. Cho, K. H. Kim, "The effects of childhood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on dating violence moderating effects of adult attachment styl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49, pp.71-96, 2015.
- [24] Y. H. Oh, S. M. Lim, "Perceived motives for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of college students: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58, No.1, pp.49-77, 2019.
DOI: <https://doi.org/10.22418/Jss.2019.6.58.1.49>
- [25] H. S. Kang, E. S. Lee, "Factors influencing the perpetrations of sexual violence while dat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7, No.3, pp.77-86, 2010
- [26] R. Luthra, C. A. Gidycz,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21, No.6, pp.717-731, 2006.
DOI: <https://doi.org/10.1177/0886260506287312>
- [27] M. R. Hong, *Gender sensibility and violence against wives in everyday life: how do the victims realize and resist common violence*,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pp.117-121, 2005.
- [28] E. J. Koo, M. J. Kwon, S. R. Ryu, Y. S. Shin, J. Y. Yoo, H. A. Jang et al., "The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emotional dating violence and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s”, *Health and Nursing*, Vol. -, No.53, pp.44-48. 2019.

- [29] A. R. Ko, *A Survey of Awareness of Dating Violenc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Kimhae, Korea, pp.38-39, 2018.
- [30] G. H. Jung, M. K. Kang,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dating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tolera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2, pp.33- 42.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33>

최 선 미(Sun-Mi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청소년건강간호, 다문화간호, 간호교육

김 래 은(Rae-Eun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경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6년 4월 ~ 현재 :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교사교육, 교수매체, 건강교육 프로그램

구 상 미(Sang-Mee Koo)

[정회원]



- 2012년 2월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5년 8월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간호, 대학생 생식건강, 데이트폭력